

새기획 돋보인 '고향'

양캠퍼스 견해차 좁히는데 일익

“교지 받아주세요”라는 소리가 고향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렇게 교지를 받아보았다. 교지는 흔히 학교의 얼굴이라고 한다. 이 말은 아마 책으로써 학교를 대표하는 속성 때문에 붙여진 것 같으나 내면으로는 그 학교의 지적 수준을 담아야 하는 책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어쨌든 37호 교지는 색다른 느낌이 많이 보인다. 표지부터가 예전과는 다르게 산뜻해서 좋았지만 교지의 내용을 상정한다고는 볼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지속적으로 모습을 보였던 (그래서인지 약간 식상했던) 지상전망화라는 사진글이 사라지고 대신 정치포스터가 속표지에 붙어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나가던 학우들은 뭘 하나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느냐. 연신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신입생들은 교지가 있는지조차 모르나보다. “그냥 받아 가는 거예요?”라고 묻기도 한다. 교지는 학우들이 낸 학생회비 중의 교지대금으로 ‘고향교지편집위원회’라는 공간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읽고 비판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집1은 전문적인 사회과학도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양: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 편집실)

지면과 시간관계로 간단한 형식상의 느낌만을 적게 되었다. 고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교지를 만드느라 수고한 고향 편집위원들께 감사

김대옥 (경제·3)

이적성 여부 논란된 '태백산맥'

평가는 독자 스스로에게 맡겨져야

내가 대학에 들어와 선배들로부터 권해 받았던 몇가지 책속에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이 있었다. 이 책은 89년 1, 2, 3부 전10권으로 완간된 뒤 2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 셀러였다. 밤을 지새우며 읽는 태백산맥 속에는 갖은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과 내가 인식했던 일반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었는가를 느꼈다. 책 속에서 나는 또하나의 살아있는 인물로서 험난한 준령들을 오가고 있었다. 그런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이었다. 영상이며

김범우 심재모의 모습들이 지면마다 펄펄 살아 움직였고, 내가 느꼈던 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협소했던가를 생각해 했다. 내가 갖는 솔직한 심정은 김일성 찬양이니 김범우의 좌익전향이니 남로당의 자발수용의 문제라 아니라, 책마다 절편하게 내려오는 우리 동족의 처절한 삶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책속에서 그런 자신들과 만나는 뜨거운 경험을 했을 터이다. 그런데 며칠 전, 이적성 여부를 놓고 이 태백산맥이 대검공안부에 의해 검토되었다고 한다. 완간된지 2년이 지난 소설을 놓고 더구나 총 2백여만부, 20여만 권이라는 판매기록을 가진다면 대단했던, 읽을 만한 사람은 다 읽은 이 책을 이

캠퍼스내 차량 혼란 줄여야

대학인의 자율적 절제가 가장 시급

지난달 성균관대학에서 발생한 교수와 학생간의 차량으로 인한 주먹다짐은 기존의 가치나 규범을 깨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보다 자동차의 역사가 긴 구미 선진국이나 일본등에서는 대학 캠퍼스내에 차를 몰고 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내에서 자동차로 인한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일만이 아니다. 본교에서도 그동안 교내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몇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학교당국은 지난 88년 겨울 정문에서 교시탑까지 5m의 폭을 넓혀 이에 대처하기도 했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순찰 아저씨를 동원하여 이곳의 주차단속을 펴고 있다. 서울캠퍼스에는 정문, 후문을 비롯해서 남종교 정문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한데 등교시간 등 복잡한 시간에는 비교적 차량통제가 어느정도 되고 있지만 철저한 통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후문에서 정문으로 통하는 대학의 캠퍼스가 일반주민들의 출입구로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어떤 시설의 개방은 할 수 있으나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통행로 역할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당국에서는 본교캠퍼스내 도로확장 계획은 더이상 없다고 한다. 필자도 그 의견에 찬성한다. 도로를 확장시키면 본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인근복지위원회의 8일부터 교내차량통제 실시를 시작했다. (대학주보 4월1일자) 이번 성대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적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펴서 쾌적한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해 일익을 담당하

전영복 (경제·2)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들에게까지 자동차를 사주어서 같은 일을 유발시킨 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기성세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자신의 학교에서 발생한 공해방지에 대하여 정당한 생각하게 생각해 보고 함께 책임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승화 (본교강사·체육학)

'민중' 주인되는 통일

남북 직교역으로 물꼬 터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오전수업이 끝나고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고 이수병영사 추모제가 열리는 공대 앞 통일광장으로 걸어갔다. 국화로 장식된 단상위에 그려진 이수병영사의 희망만 얼굴 아래 여러 유명한 인사분들과 생전의 친구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단동을 교역하기로 했다. 민간차원의 외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북측이나 우리 모두 상대에게 갖는 호감이 예전같지는 않다. 마침내 단일 민족이라는 감정적 회복을 가져온 것이다.

작년 봄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서 처음 알게된 열사의 이름은 이번 추모제를 계기로 그 생애와 업적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더욱 본교 선배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특히 불문과 친우인 동우가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북소리와 함께 학생회관까지 올라갈 때에는 열사의 뜨거운 나라사랑의 정신을 마음 속에 새기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며 선배임에 가슴 뭉뚱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이수병영사 역시 민중이 주인되는 통일을 원했던 것이다. 그가 되찾은 통일이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그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최근 남북직교역의 물꼬가 터졌다. 우리는 쌀을, 북한은 무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통일의 길로 함께 가자고

김다나 (서반야·3)

동문모임

시흥과 동문회
 【수원캠퍼스】 ▲부산 대성 중앙=오는 16일 오후5시30분, 1호 관휴계실 ▲광주 금호·중앙여고=오는 오후6시, 1호관휴계실 ▲시흥=오는 17일 오후5시30분, 1호관휴계실

습득

본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황미영(사학·2) ▲안원준(신방·86) ▲이정희(무역·87) ▲김선아(의상·88) ▲박경현(약학·87) ▲송미선(약학·86) ▲정혜진(기약·3) ▲김진경(무용·87)
 ◆검은색지갑=한종준(법학·85), 지난 10일 회기역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박해수(국문·4) ▲신현철(국문·4) ▲홍미숙(물리·2) ▲이순우(행정·4) ▲이종호(경제·2) ▲최승봉(경영·3) ▲홍성택(경영·1) ▲김기태(의예·1) ▲윤소영(한외·2) ▲김대영(한외·2) ▲최동준(한외·1) ▲장성진(치의예·1) ▲박규태(치본·1) ▲문수영(치본·1) ▲김영진(성악·1) ▲김주환(기약·4) ▲박형준(체육·4) ▲남보경(체육·2)

알림

알림
 ▲이진호(식공·88) ▲신형식(식공·88) ▲배병원(요공·89) ▲장호식(요공·88) ▲이현구(인학·89) ▲김영진(농학·88) ▲장성진(농학·89) ▲김성희(원예·89) ▲정혜경(원예·89) ▲심현정(체육·89) ▲김동철(태권도·90)

소리빛

‘소리빛’ 수화강습 오는 5월1일부터
 동아리 ‘소리빛’은 5월1일부터 한달동안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수화강습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로 접수는 학생회관 4층 동아리방에서 받는다.
 교재비는 수화책과 점판 구입비로 3천원이다.

4월 주제

‘혁명’

4월19일이 되면 매년 예의없이 나는 날다른 감회에 젖는다. 그것은 꼭 31년전 그날 나는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 데모라는 것을 해 보았고, 최후가스에 앞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눈물도 흘렸고, 옆에서 친구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으며, 체포를 당한 후 형무소라는 곳에서 소위 공방도 먹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내가 운동권에 투쟁했던 것같이 들리겠지만 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그저 학교와 집을 왔다갔다 하는 평범한 물리학과 학생이었다.
 4월18일, 고대생들의 데모로 조금 이수선학기는 했지만 19일 아침에도 어느때와 다를없이

해마다 떠오르는 혁명의 그 날

나는 가방을 끼고 등교하여 강의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후 교정에 모이라는 전갈이 왔다. 반은 호기심에 그곳에 나가 보았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였고 몇몇 간부 학생들의 호소에 따라 우리는 스크린을 짜고 모두 교문 밖으로 뛰쳐 나갔다. 동승등에서 출발

나 화염병, 돌들은 전혀 없이 구호와 노래만이 데모의 절실함을 웅변해 주었다. 물론 연도의 시민들부터는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대로 향하던 대열이 효자동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곳에 세워져 있던 소방차를 앞세우고 정부대 인티킬을 올라서던

며칠후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풀려나가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온 국민이 그렇게 갈망하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데모와 정권에 대한 저항은 31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피흘려 얻은 민주주의는 군사혁명에 의해서 짓밟혔고



민영기 (자연대교수·우주과학)

4·19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학생·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앞에 갑자기 군복을 입은 무리가 나타난 것이다. 순간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앞뒤에서 친구들이 쓰러졌다. 여기서 나는 친한 수학과 친구를 잃었다.
 결국 그들의 포위망을 빠져 나오지 못한 우리는 체포되어 마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결국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민주화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일부는 4·19세대와 자처하는 우리 세대에도 있음을 통감한다. 4·19때 앞장섰던 학생 간부의 상당수가 공화당과 민정당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제 세계의 냉전 무대가 사라지고 통일의 무드가 무르익어 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구시대적인 통치 수단에 집착해서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시국문제나 통일문제에서 어른스러운 유연성을 보일때다.

학생 운동도 그렇다. 과격과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 학생 간부들은 왜 대부분의 학생과 국민이 학생 운동에 외면하고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볼 때이다. 소수 학생만이 참여하는 빈번한 데모와 농성, 그리고 화염병 투척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4·19때와 마찬가지로 학생,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벽들을 한창 한창 쌓아 올라가는 벽돌공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허투루 학교가 평화스러운 배움의 장, 누구나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수 있는 통일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랄뿐이다.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

그애를 만났지 3년째 남들은 흔히 커플이라고도 하지만 정작 변변한 고백 한번 들은적 없는 그저 그런 사이...
 내게 마음이 없는 걸까?
 아니면 성격이 무뎌서일까?
 그러던 그애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
 어느날 부스러거리며 잠바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바로 장미꽃 한송이가 아닌가!
 “누가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라고 그러길래...”
 듣고보니 제법 맛있는 고백이었다.
 장미꽃 한송이를 주며 Only You?

사랑의 꽃 사랑의 콘

해태리베나 꽃다발 축제

♥ 응모기간: '91. 5. 5 ~ '91. 5. 24

누군가에게 꽃을 주고 싶으세요?
 누군가로부터 꽃을 받고 싶으세요?
 리베나콘이 당신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축제 1
 리베나콘 속에 1매씩 들어있는 꽃그림 스티커를 리베나콘 라벨이 그려진 스티커를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아름다운 꽃다발을 보내드립니다. (20자 이내의 사연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꽃과 사연을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은 읍단위 이상만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축제 2

선물 1: 이콘 1개 (우편지 1장)
 선물 2: 이콘 2개 (우편지 2장)
 선물 3: 이콘 3개 (우편지 3장)

리베나콘 속에 1매씩 들어있는 꽃그림 스티커를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원하는 선물 1쌍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위 선물중 1가지를 골라 우편엽서에 적어주세요.)

■ 보내실곳: 서울·영등포구 양평동5가186 해태제과(주) 해태리베나콘 사은대리점 담당자 앞

● 화환서비스가격: ₩500

고소한 아몬드 아삭아삭...
 유지방 8%의 고급 바닐라 아이스크림
 새로운 아이스크림 해태 리베나.